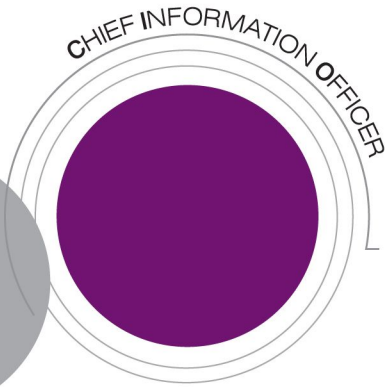




CHIEF INFORMATION OFFICER

CIO REPORT

스마트 정부의 공공정보 개방과 이용활성화 전략

| Vol.28 2010. 12 |

CHIEF INFORMATION OFFICER

C O N T E N T S

Vol. 28 2010. 12

01 • FOCUS

02 스마트 정부의 공공정보 개방과 이용활성화 전략

28 • EXPERT INSIGHT

29 공공정보 개방·활용 가속화를 위한 인식의 대전환 필요

CHIEF INFORMATION OFFICER

FOCUS

스마트 정부의 공공정보 개방과 이용활성화 전략

작성 : 이정아 책임연구원(한국정보화진흥원)

1. 오픈 거버먼트와 공공정보 개방의 중요성
2. 공공정보 개방과 활용 정책 현황
3. 공공정보 개방과 활용 촉진 전략

- 세계 각 국은 인터넷 양방향성을 활용, 적극적인 정부 정보의 공개나 정책 결정에 시민참여를 촉진하는 ‘열린 정부(open government)’를 급속히 추진
 - 참여형(inclusive) 정책 결정이 정부의 설명 책임을 증대시켜 결정에 대한 시민의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시민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인식
- 이처럼 열린 정부가 지향하는 ‘투명한 협력으로 정부신뢰 회복과 민주주의 확립’을 위해 최우선시 되는 정책이 적극적인 공공정보 개방과 활용 촉진 정책
 - 또한, 공공정보 개방을 통해 데이터와 시스템 중복을 제거하고 정보 공유를 통해 정부기관 간 공동 활용함으로써 예산절감과 행정 효율화 추진
- 시민의 정책 참여 촉진을 지향하는 스마트 정부의 정책과 정보화 환경의 급속한 변화 등에 따라 공공정보 개방과 활용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확대
 - (투명성 제고) 각 국의 전자정부 구현 수준이 고도화 되면서 공급자 측면에서의 구현단계를 지나, 시민 참여를 확대시키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
 - (공개요구 증대) 영리·비영리 측면에서 공공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공개를 요구하는 시민의 새로운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
 - (신규 서비스 창출) 급변하는 ICT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다양화 되면서, 공공정보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창출해 낼 전망
- 주요국은 공공정보 개방과 재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공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 강구
 - (EU) 공공정보 재활용 지침을 실현하는 e-Contentplus 프로그램 지원으로 공공정보 재활용을 촉진하는 네트워크 조직 ‘ePSIplus’ 운영
 - (영국) EU 국가 내에서도 가장 선도적이며, 적극적으로 PSI 개방과 이용, 재활용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 (미국) 각 부처와 기관·지역정부의 공공정보를 제공해 국가 공공정보 이용의 접근성 향상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data.gov’ 포털 운영
- 민간 부문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과 함께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시민 참여를 촉진하는 데 필수적인 공공정보 개방과 활용을 위한 정책적 전략이 반드시 필요

정책 과제	세부 추진 내용
공공정보 제공과 활용의 법제도적 기반 마련	· 유사 법령에 대한 통합적 측면의 개선 논의 · 공공정보 개방이나 활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입법화 필요
공공정보 개방과 활용을 위한 인식 전환	· 각 기관의 적극적인 정보개방 의지 필요 · 공공정보를 공개하는 기관이나 담당자 인식의 변화가 중요
공공정보 제공과 활용 지원 체계 정비	· 공공정보활용지원센터(PISC)의 법적 근거 마련 · PISC의 역할 확대와 강화, 조직의 체계화
민관 협력 강화와 상생 도모	· 민간은 수익창출 및 공공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발굴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다양한 수요에 적극 대응

1. 오픈 거버먼트와 공공정보 개방의 중요성

① 오픈 거버먼트와 공공정보 개방 촉진

- ◎ 세계 각국은 인터넷 양방향성을 활용, 적극적인 정부 정보 공개나 정책 결정에 시민참여를 촉진하는 ‘열린 정부(open government)’ 정책 추진
 - 시민참여를 주축으로 정책성과를 향상시키고, 정부 ‘주요 비즈니스(core business)’의 일부로써 개방된 참여형 정책결정 촉진
 - 참여형(inclusive) 정책 결정이 정부의 책임을 증대시켜 정책 결정에 대한 시민의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시민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인식
- ◎ OECD는 정부 투명성과 시민참여 확대, 전자정부를 활용한 효율화와 이용자 중심의 참여형 정책 발전을 동시에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¹⁾
 - 정책 개발에 시민참여를 확대해 투명성·공개성을 높이는 것이 필수이며, 이러한 정부 모델로 전환해서 고도의 상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
 - OECD는 시민참여 촉진을 위해, ① 시민참여를 한 축으로 해서 정책 성과 향상 ② 효과적인 평가 툴 개발 ③ 기술과 참여형 웹 활용 ④ 참여를 위한 건전한 원칙 채택과 실시 등을 회원국 정부에 요구²⁾

< 열린 참여형 정부가 되기 위한 10가지 지침(OECD) >

구 분	지침 내용
① 관여	열린 정책 결정을 위한 리더십과 관계자들의 강력한 관여가 필요
② 권리	시민참여에 대한 시민의 권리는 법률이나 정책으로 명시
③ 명확성	참여목적 등을 정의하고 관련자 역할, 책임 명시. 정부 정보는 완전성·객관성·신뢰성 확보
④ 시간	시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가능한 한 정책 프로세스에 대한 즉각적인 시민참여 실시
⑤ 포함·참여	폭넓게 다양한 사람을 참여시키기 위해 정보접근을 위한 모든 적절한 대처 실시
⑥ 자원	공무원이 오프라인·온라인 툴 모두를 지원하는 조직문화, 적절한 스킬, 지침, 훈련 제공
⑦ 협조	부처간 협력 이니셔티브 공유로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고, ‘협력 피로’의 리스크 저감
⑧ 설명 책임	정부의 설명 책임이나 신뢰 증대를 위해 정책 결정 프로세스를 투명하게 개방
⑨ 평가	시민참여를 평가하는 수요·능력·문화·툴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
⑩ 적극적 시민권	정부는 시민, 시민사회단체(CSO), 기업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 ※ 손쉬운 정보접근 제공, 참여 장려, 의식 제고, 교육과 스킬 강화, 시민사회단체 능력 강화 등

출처 : OECD, Focus on Citizens : Public Engagement for Better Policy and Services, 2009

- 1) OECD, ‘The Governance Challenge and Ensuring Economic Recovery’(2009. 4). 본 보고서에서는 세계적 경제위기에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제시
- 2) OECD, ‘Focus on Citizens : Public Engagement for Better Policy and Services’(2009. 6). 본 보고서는 25개국 정부와 14개국 54개의 시민사회 단체(CSOs : Civil Society Organizations)를 조사, 그 결과에 근거해서 OECD 각 국의 참여형 정책 결정(open and inclusive policy making)에 대해 검토

◎ 특히, 미국 연방정부는 오바마 정권 발족 이후 중점 정책기조로 ‘열린 정부’에 초점에 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크게 변화³⁾

- 그동안 미국 전자정부 정책 이니셔티브나 전자정부법에서 중시한 것은 연방정부에 IT시스템을 도입해 행정서비스 전자화·효율화 추진 및 국민·기업의 편리성 향상
- 그러나 오바마 정권은 새로운 웹기술의 적극적인 도입으로 정부 정보 공개와 정부의 각종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시민참여를 목표로 하는 ‘열린 정부 정책’에 대처

< 미국 열린 정부 이니셔티브에서 작성된 16개의 제안 >

3가지 원칙	16개의 제안 내용	서비스 사례
정부·정책·정보 투명성 (transparency)	- 투명성의 원칙 : 「투명성」 정의 - 투명한 거버넌스 : 투명성의 제도화 - 열린 정부 운영 : 더욱 투명한 정부를 향한 전략 - 데이터 투명성(Data.gov) : 정확한 온라인 데이터 갱신 - 정보 접근 : 정부 데이터 접근성 향상 - 기타 정부의 투명성에 관한 제안	- Data.gov(OMB, '09) - DoDTechipedia(DOD, '08)
시민 참여 (participation)	- 정책결정에 시민 참여 : 새로운 기회의 창출 - 시민 참여 강화 : 시민 트레이닝 - 신기술과 정치 참여 : 뉴미디어를 통한 참여 가능성 - 온라인 시민 참여 강화 - 규제 정책에 온라인 시민 참여 향상 : e를 메이킹 - 기타 국민의 정치 참여에 관한 제안	- Regulations.gov('03, '09개정) - Open for Questions('09) - HealthReform.gov('09) - Peer to Patent('07) - Idea Factory('07) - Science Integrity Blog('09)
민관 협력 (collaboration)	- 정부간·정부내 협력 - 민관 파트너십을 위한 인센티브 - 온라인 분쟁의 해결책 - 기타 민관 협력에 관한 제안	- Aristotle('08) - Development 2.0 Challenge - Collaborate('09) - Business.gov('04, '09 개정)

출처 : 市川類, ‘미국 연방정부에 있어서 오픈 거버먼트 정책 동향’, IPA NY.를 참조해 재정리

◎ 이처럼 열린 정부가 지향하는 ‘투명한 협력으로 정부신뢰 회복과 민주주의 확립’을 위해 최우선시 되는 정책이 적극적인 공공정보 개방과 활용 촉진

- 국민과 정부가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열린 정부 구현을 위해 공공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시민이 개방된 정보를 활용해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가미된 새로운 정책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장을 제공
- 또한, 공공정보 개방을 통해 데이터와 시스템 중복을 제거하고 정보 공유를 통해 정부기관 간 공동 활용함으로써 예산절감과 행정 효율화 추진

3)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식 직후인 2009년 1월 21일, 연방정부 행정기관 및 각 부처 장관에게 메모랜덤으로 ‘Transparency and Open Government’을 발표, 2009년 12월 8일에 ‘Open Government Directive’ 발표

② 공공정보 개방과 활용의 중요성 확대

- ◎ (투명성 제고) 각국의 전자정부 구현 수준이 고도화 되면서 공급자 측면에서의 구현단계를 지나, 시민 참여를 확대시키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
 - 전자정부는 정부 업무의 편리성과 효율성 제고 단계를 지나, 공공 정책과 서비스 설계·제공에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면서 정책의 투명성을 확대하는 단계로 진입
 - 정부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최우선 정책은 시민을 위한 공공정보 개방과 시민 의견의 청취와 수렴
- ◎ (공개요구 증대) 영리·비영리 측면에서 공공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공개를 요구하는 시민의 새로운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
 - ICT 신기술과 공공정보를 접목한 응용 프로그램과 킬러 서비스, 다양한 수익모델 발굴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급증
 -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자, 앱 개발자 등은 공개되는 공공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해 신산업과 사업,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활용을 촉진
- ◎ (신규 서비스 창출) 급변하는 ICT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다양화 되면서, 공공정보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창출해 낼 전망
 - 각종 스마트 기기의 발전으로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활용이 스마트 사회의 기반으로 자리매김
 - 따라서 공개된 공공정보가 개방과 공유화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공 정보를 활용해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추세



출처 :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홈페이지의 이미지를 수정보완

2. 공공정보 개방과 활용 정책 현황

① 주요국의 공공정보 개방과 활용 정책 현황

- ◎ OECD는 공공정보(PSI, Public Sector Information)⁴⁾ 개방성과 재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공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 강구
 - － 이에 따라 OECD는 회원국에게 공공정보의 이용을 촉진하고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권고 채택⁵⁾
 - － 본 권고는 회원 국가들이 공공정보와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폭넓게 활용하고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일반적인 프레임워크 제공
 - － 공공정보의 새로운 활용방안 개발과 효율적 확산, 폭넓은 활용과 접근을 통한 사회경제적 이익 향상과 PSI에 대한 재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권고

< PSI의 효율적 활용과 접근성 향상을 위한 OECD 정책 원칙 >

구 분	지침 내용
개방성(Openness)	이용과 접근성 촉진을 기본 원칙으로 개방
투명성-접근성(Access and transparent conditions for re-use)	PSI 재활용에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폭넓게 활용을 촉진
자산리스트(Asset lists)	재활용과 접근이 가능한 공공정보 리스트나 목록(inventories)의 명확화
품질(Quality)	다양한 정부기관에서 산출된 PSI의 신뢰성과 품질향상을 위한 보증
보전성(Integrity)	공공정보가 권한 없이 변경되지 않도록 정보의 효용성과 보존성 극대화
신기술장기 보존(New Technologies & long-term preservation)	PSI에 대한 접근성과 호환성 제고를 위해 신기술을 통한 아카이브, 정보검색 기술 등을 향상시키고 정보 저장 및 보존 능력 향상
저작권(Copyright)	PSI의 폭넓은 활용을 위해 저작권 문제 해결
가격(Pricing)	PSI 접근과 재활용을 위해서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가격 책정
경쟁(Competition)	PSI의 제공과 활용에 있어 정부 독점이 아닌 공정한 경쟁 필요
시정절차(redress mechanisms)	불만이나 요구 등에 적절하게 대응
민관협력(Public Private Partnerships)	PSI 재활용을 위해 민관협력 강화
국제적 접근 및 활용(International access and use)	PSI의 상업적·비상업적 활용을 위해 국제적 협력을 지원하고 데이터 호환성 촉진
모범사례(Best Practices)	PSI 재활용 촉진을 위해 다양한 모범사례와 정보(이용자 교육, 가격과 비용모델, 저작권 문제 해결, 성과 모니터링, 사회적 영향력과 경제적 성과 등) 공유 장려

출처 : OECD, 'OECD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For Enhanced Access And More Effective 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2008 내용을 요약, 정리

4) 본 권고에서의 'PSI'는 권고의 목적을 위해 광범위하게 정의. 즉 정부 또는 공공기관을 위해, 또는 이들의 재원을 받아 확산, 보관, 처리, 보존, 수집, 생성, 서비스 된 정보나 산출물을 PSI에 포함

5) 본 권고(OECD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For Enhanced Access And More Effective 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는 OECD ICCP 위원회가 개발. 2007년에 PSI 활용 원칙에 대한 사전 분석 작업을 시작해 2008년 8월에 채택. 본 권고는 PSI의 효율적 활용과 접근성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3년마다 재검토

◎ 유럽위원회(EC)는 일자리 창출, 혁신과 경쟁력 향상이라는 EU 목표에 공헌하기 위해 디지털 아젠다의 하나로 PSI 개방과 재활용을 적극 추진

— 'EU 공공정보 재활용 지침'을 실현하는 e-Contentplus 프로그램⁶⁾ 지원으로 공공정보 재활용을 촉진하는 네트워크 조직 'ePSIplus' 운영

※ 공공정보 재활용 지침(EU PSI Directive) : Directive 2003/9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17 November 2003), EU 국가의 공공정보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 장려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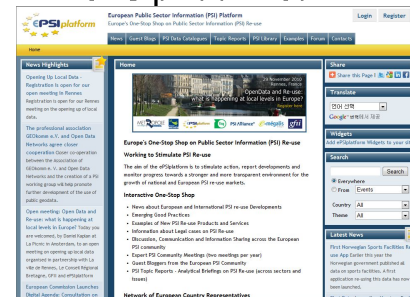
. ePSIplus는 유럽 각국과 연계해 행정 분야와 시민·기업 이익을 위해 공공정보 재활용 촉진 및 운영(2006. 9~2009. 2) 프로젝트

※ ePSIplus 주요 임무 : 재활용 관련 법·규정절차 등 모니터링, 공공 조직과 문화 변화, 공공 정보 재활용 비즈니스 촉진과 비용정책 모니터링, 데이터 품질과 표준·정보 관리 지원

— ePSIplus 프로젝트를 통해 PSI 재활용 원스톱
 숍인 'ePSIplatform' 포털을 구축(2009. 3~2011. 2
 운영), 유럽 각국의 PSI 재활용을 촉진

. ePSIplatform에서는 공공정보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전략 제시, 모범사례, 법제도 정보, 다양한
 정보교환, PSI 전문가 미팅(연2회) 등 추진

< ePSIplatform.eu >



— 한편, EC는 EU 공공정보 재활용 지침 개정과 함께 EU 국가의 공공
 정보 재활용 가속화를 위해 '공공분야 데이터 재활용 컨설팅위원회' 런칭

. EU 각국 정부가 효율적이고 차별 없는 조건으로 투명하게 활용
 가능한 공공정보로 콘텐츠시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재활용 지침 재검토

※ 공공정보 활용과 관련된 비용 청구, 데이터 라이선싱, 데이터 포맷과 정의 등의 내용

. 또한, 공공정보를 더욱 원활하게 개방해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시민과
 각 분야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2010. 11. 30까지)

< **닐리 크뢰스(Neelie Kroes), EC 부위원장** >



“더 많은, 더 나은 PSI 활용은 소비자에게 더 많은 가치와 선택을 제공하고, 새로운 일자리와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거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PSI관련 모바일 앱 시장은 2013년에 150억 유로까지 성장할 것이다. 우리가 이런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데, 아직 유럽의 PSI 재활용은 많이 부족하다. 따라서 PSI의 경제적 잠재력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를 개선해서 PSI 재활용을 위한 EU 틀을 어떻게 책정해야 할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 닐리 크뢰스 : 유럽위원회 디지털 아젠다를 위한 위원회 부위원장(Vice-President)

6) eContentplus : 더욱 접근하기 쉽고 이용하기 편리한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유럽위원회(EC)의 프로그램

◎ 영국은 EU 국가 내에서도 가장 선도적이며, 적극적으로 PSI 개방과 이용, 재활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 2001년에 이미 공공정보등록소에 정부기관 보유 정보자산의 메타데이터 (소재정보)를 비공개했던 정보까지 포함해 공개하는 등 적극 대처

· 2007년에는 ‘공공정보 공개에 따른 공공서비스 향상’ 연구(Power of Information)를 추진, 이를 토대로 정부 대응책을 동시에 공표(2007. 6) 하고 연구에서 제안된 정책 추진을 위한 TF 설치(2009. 2 보고서 제출)

※ Power of Information에서는 정부가 시민전체를 대표해서 수집한 정보를 최신 ICT를 활용해서 시민서비스 향상에 활용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15가지를 제안. 영국정부는 제안을 모두 받아들이고, 공공정보 공개를 ‘Public Service Reform’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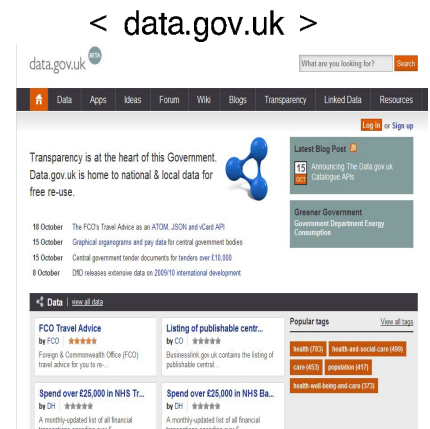
— 또한, 영국의 공공정보 이용·재활용과 관련된 정책 아젠다를 실현 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 영국 내각에서 OPSI를 운영

※ OPSI(Offic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 2006년 6월에 ‘The National Archives’와 통합

· OPSI는 공공정보 공개나 재활용·검색·이용·공유 등의 촉진, 표준정리 등의 공공정보 정책 추진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EU 공공정보 재활용 지침’ 실현의 모범사례이며, 공공정보 재활용 촉진의 대표적인 브랜드

— 2010년 1월에는 국민에게 정부 데이터 접근성 확대와 정부 투명성 제고, 가치 있는 공공 정보를 제공하여 정부와 관련 산업의 기능을 더욱 효율화한다는 기본적인 목적을 가지고 ‘data.gov.uk’ 사이트(beta) 오픈

※ 영국 수상 고든 브라운이 “몇 달 안에 정부 데이터를 가능한 모든 계층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e-Government 전략을 발표한(2009.7) 이래 6개월 만에 오픈



< 스테판 팀스(stephen Timms), 디지털 영국 장관 >



“영국 정부는 공공 성격의 정부 데이터를 자유롭게 공개함으로써 영국의 경제 사회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즉, 산업계가 공공 데이터를 창조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고 그것으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영국 정부는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을 효율화함으로써 기업들에게 엄청난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 미국 연방정부는 각 부처와 기관·지역정부의 공공정보를 제공해 국가 공공정보 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데이터센터 역할을 하는 'data.gov' 포털을 운영

— 현재 교통·의약품 안전·범죄·비만·고용·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공공정보와 데이터를 data.gov를 통해 제공

— 또한 제공된 데이터셋을 활용한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적극 장려해 현재 민간에서는 이 데이터셋과 연관된 신규 애플리케이션 개발

※ 총 272,677개의 데이터 세트 제공(2010. 9 현재), 236개의 신규 애플리케이션 개발

— 이와 함께 모든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과 공공서비스 제공에 참여할 수 있는 사이트인 'Challenge.gov'도 미국 PSI 재활용의 모범사례

※ Challenge.gov : 정부 부처나 기관이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의 전문성과 의견을 수렴하는 사이트. 각 부처에서 일정 상금과 함께 다양한 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공개적으로 올리면 시민은 다양하게 진행되는 프로젝트를 검색하고 의견이나 해결책 제시('헬스케어 앱'이 대표적). 'data.gov'에 공개되는 공공정보와 데이터 등을 활용해 'Challenge.gov'에 아이디어와 솔루션 제공

< Data.gov >



< Challenge.gov >



◎ 뉴질랜드와 호주 정부 또한, 공공정보의 접근성 확대와 재활용을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공공정보 공개 포털 구축 및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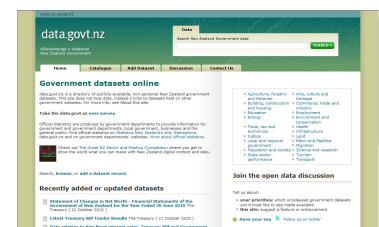
— 시민 누구나 원하는 공공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정책추진에 시민 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data.govt.nz' 개설(2009. 11, Nathan Guy 내무부 장관)

※ data.govt.nz는 데이터 저장소가 아니며, 부처 웹사이트에 연계해서 정보 제공. 뉴질랜드에서는 오픈 데이터 사이트인 'Digital New Zealand', 'Open Data Catalogue' 사이트도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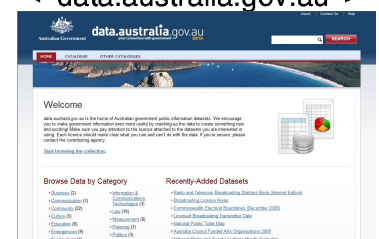
— 'data.australia.gov.au'(beta)는 호주 정부의 데이터 셋으로서, 정부 데이터를 활용해(mashing-up)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낼 수 있도록 재활용 촉진

※ data.australia.gov.au 데이터셋은 여러 정부기관에서 제공. 사이트는 현재 베타버전이며, 지속적으로 수정보완 중

< data.govt.nz >



< data.australia.gov.au >



- ◎ 일본은 미국이나 유럽·호주 등 각국 정부에서 촉진하고 있는 적극적인 정부 정보 공개와 함께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정부 실현, 공공정보 접근성 향상과 이용, 재활용을 통한 경제 활성화 등의 정책에 공감대 형성
 - 그러나 현재 중앙정부나 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정보가 충분히 제공, 공개되지 않아서 공공정보의 공유나 활용이 미흡한 상황
 - 이에 따라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전략’에서는 행정정보의 공개와 제공, 시민의 정책결정 참여 등 공공정보의 활용을 가속화하는 의지 피력
 -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나 정보로서의 가치가 부족한 정보 등은 공개에서 배제하고, 비용대비 활용 효과 등을 검증하면서 정보공개를 진행

< 일본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전략’(2010. 5, IT전략본부) >

- 행정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2차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공개하고, 원칙적으로 모두 인터넷에서 편리하게 입수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적극 추진
- 행정 기관이 보유한 통계·조사 등의 정보는 개인정보보호 관점에서 정보를 집약화·익명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모두 2차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인터넷에서 용이하게 입수해 활용토록 함으로써 신산업 창출을 촉진

(※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전략 중에서 ‘공공정보 공개 및 활용 전략’과 연계된 내용 발췌)

- 현재 각 부처나 자치체, 행정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공공정보 공개와 제공, 시민의 정책결정 참여 촉진 등 열린 행정을 목표로 ‘openlabs.go.jp’ 사이트 개설(경제산업성, Beta, 현재 지속적으로 구축 중)

< openlabs.go.jp >

- 본 사이트에서는 인터넷을 활용한 열린 정부 실현을 목표로 다양한 실증과 함께 관련된 정보의 수집과 제공도 추진

- ‘openlabs.go.jp’ 사이트 개설의 1차적인 목적은 열린 행정과 시민의 정책 참여 독려

※ 국민의 소리 수렴(IdeaBox), 국내외 열린 정부 정보 집대성(‘오픈 거버먼트 Wiki’), 트위터를 이용한 정부/자치체 대응(govtter), 통계활용 사이트(‘Databox’) 등을 운영



- 그러나 공공정보 2차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정보 공개에도 적극 대처
 - ※ 2차적 재활용이 가능한 국립정보학연구소의 학술논문 검색DB(CiNii), 과학연구비보조금DB(KAKEN) 서비스. Open Search에 따른 검색이나 RDF(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 출력도 가능

< 각 국의 PSI 개방 및 재사용 정책 추진 현황 >

국 가	주요 내용
오스트레일리아	· 정부(연방·주·지방정부) 차원에서 PSI 이용·재사용 정책과 실현의 선도적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노력 - PSI 활용 촉진을 위해 ‘정보자유(FOI, Freedom Of Information)법’ 정비 - 연방·주정부가 ‘Information Commissioner Offices’ 설립 - PSI 활용의 사회경제적 중요성 인식 · 퀸즈랜드(Information Standard 33, QGEA GILF 정책 등)·빅토리아(date.vic.gov.au, AppMyState 등)·뉴사우스웨일스(Information.nsw.gov.au, Apps4nsw 등) 등 주정부도 PSI 이니셔티브 책정
뉴질랜드	· PSI 재사용 촉진을 위한 라이선스 해결을 위해 PSI의 개방된 접근과 라이선스를 위한 프레임워크(NZGOAL) 런칭
프랑스	· 전기정보산업협회(GFII) 등은 포럼 등을 통해 PSI 재사용 촉진활동 추진 · APIE(Agency for Public Intangibles of France)는 데이터 포털 계획 조정, 접근성과 가격, 라이선스나 PSI 이슈 관련 정책 등을 개발 · 공공 출판 및 정보위원회(COEPIA) 설립(2010. 1) · 2010 말까지 Data.gov 형태의 프랑스 PSI 정부 데이터 포털 구축 예정
핀란드	· 공간정보(INSPIRE, Infrastructure for Spatial Information in Europe) Directive 2007/2/EC 기반 구현 · 데이터 카탈로그 프로젝트 진행과 혁신적인 앱 콘테스트 등을 포함한 PSI 재사용 이니셔티브 추진 · 열린 정부 데이터 가이드북(Public data - an introduction to opening the information resources) 발표
스웨덴	· 온라인 정보 서비스를 위한 원스톱 숍 ‘InfoTorg’ 포털 운영 · PSI 기반의 직접적인 마케팅 서비스(20개 이상의 재판매자가 재사용)
스페인	· PSI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강조한 ‘PSI법(PSI 재사용법 37/2007)’ 제정 · PSI 재사용의 잠재성을 보여주기 위한 ‘Aporta’ 프로젝트 런칭
체코	· PSI 포털 ‘EPMA’ 런칭(2007. 6)
독일	· PSI 재사용과 관련된 법제도 정비(정보자유(FOI)법 등) · 영국이나 미국과 유사한 PSI 제공 포털(data.gov.de) 구축 노력
네덜란드	· 정부 데이터와 정보를 위한 메타데이터 표준(OWMS) 발표(ICT office)
노르웨이	· PSI(정부 데이터셋 등) 라이선싱 모델 협의(블로그, data.norge.no)
아일랜드	· PSI 재사용 지원을 위한 ‘www.psi.gov.ie’ 포털 운영

출처 : ePSIplatform, Topic Report 각 호(각 국의 PSI 정책 추진 현황) 요약, 정리

② 한국의 공공정보 개방과 활용 정책

- ◎ 한국은 정보화와 전자정부 사업의 촉진, ICT의 활용이 가속화되면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정보의 종류와 양이 지속적으로 증가
 - 이에 따라 공공정보가 공무상의 활용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활용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중요 국가 자산으로 부상
 - 공공정보를 새로운 서비스나 상품 개발의 원천정보로 활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기업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
 - ※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면서 공공정보를 활용한 신규 서비스의 개발이 급증하는 등 공공 정보 활용에 대한 요구가 급증
 - 그러나 공공정보 접근의 어려움, 공공기관 정보공개 의지와 활용 인식 부족, 정보 공개 제도 미비 등 공공정보 활용에 관한 문제점이 지적
- ◎ 이러한 인식에서 관계 부처 공동으로 ‘공공정보민간활용촉진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하고, 공공정보 개방과 재활용 의지를 천명
 - 본 계획에서는 재활용을 위한 공공정보 공개, 공공정보 활용 확대 유도, 공공정보 재활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 창출 제고 방안 마련
 - 또한 공공정보 소재안내와 접근성 강화 방안, 공공정보 제공과 활용을 위한 제도 정비, 그리고 민간 활용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 제시
 - ※ 공공정보를 쉽게 찾아 활용하도록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위한 부처 간의 제휴 강화, 공공정보 민간 활용 지원 강화 등

< ‘공공정보 민간활용 촉진 종합계획’ >

(2010. 3.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

- 공공정보 소재안내 및 접근성 강화
 - 공공정보 존재여부와 소재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공정보 종합안내서비스 제공
- 공공정보 제공 확대 및 제도 정비
 - 국가기관 등이 자발적으로 공공정보 원문을 민간에 제공하도록 각 기관에 협조 요청(관련법 개정 전까지), 공공정보 제공·활용 실적을 평가해 인센티브 제공
- 공공정보 품질제고
 - 공공정보 DB 구축에서 운영·관리까지 전 단계에 걸쳐 일정수준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지침 제공
- 공공정보 활용 지원
 - 공공정보를 쉽게 활용하도록 표준 방식으로 제공하고, 활용 수요가 높은 공공정보를 OpenAPI 기반의 공유서비스로 개발해서 제공

◎ 공공정보 개방과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민간의 다양한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정보 활용 지원센터(PISC, Public Information Support Center)' 설치, 운영(2010. 6 ~)

- PISC는 공공정보 개방·수집·활용과 관련된 애로를 통합 접수해서 상담, 지원하는 전담창구
- 공공정보 수요자(민간)와 공급자(공공) 지원을 병행, 공공정보 개방과 민간 활용 활성화를 동시 유도



- . (민간지원) 기업 등이 필요로 하는 공공정보에 간편하게 접근하고 수집할 수 있도록 정보목록서비스, 신청안내, 보유기관 연계 등 지원
- . (공공지원) 공공기관 등이 보유 공공정보를 용이하게 개방할 수 있도록 품질개선, 저작권 권리 파악, 정보제공 대행 등 지원

< 공공정보활용지원센터(PISC) 역할 >



출처 : www.pisc.or.kr

◎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이 공공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공공정보 민간 활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공공정보 제공지침' 고시(2010. 7, 행정안전부)

- 공공정보 제공 기반 마련을 위해 공공정보 제공 절차와 방법 등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공공정보 제공지침 마련과 보급
- 공공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공공정보 활용촉진을 위한 의무를 규정

※ 근거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8조(지식·정보의 공유·유통) 국가기관 등은 국가 정보화의 추진을 통해 창출되는 각종 지식과 정보가 사회 각 분야에 공유·유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반을 마련

- 공공정보활용지원센터(PISC)에서는 공공정보 개방 및 수집·활용과 관련된 공공·민간의 다양한 애로를 종합·상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능체계를 마련하여 운영
 - 2010년에는 공공정보 목록서비스, 공공정보 신청안내서비스, 공공-민간간의 연계 중개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향후 지원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
- 기업 등이 필요로 하는 공공정보에 간편하게 접근하고 수집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이 자유롭게 공공정보와 관련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 수행
 - 공공정보를 한 번에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공공정보 목록 서비스, 공공정보 제공 신청 안내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정보 신청안내 서비스 제공
 - 민간과 공공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간의 연계지원 서비스를 위한 민간-공공간 연계 서비스, 공공기관과 민간간의 이견 조정을 위한 민간-공공 간 협의중재 서비스 제공
 - 공공정보 품질 보증을 위한 공공정보 품질컨설팅 서비스, 공공정보 저작권 점검 관련 공공정보 저작권 자문 서비스, 원가산정을 위한 공공정보 원가산정 서비스 제공
 - 민간에 공공정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공공정보 제공기술 지원 서비스(정보보호 기반 기술 등), 반복적인 공공정보 제공 업무 지원을 위한 공공정보 제공대행 서비스, 공공기관이나 민간이 요청하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타 지원서비스 제공

< 공공정보활용지원센터 주요 서비스 >



< 공공정보 개방 및 활용 지원 절차 >



3. 공공정보 개방과 활용 촉진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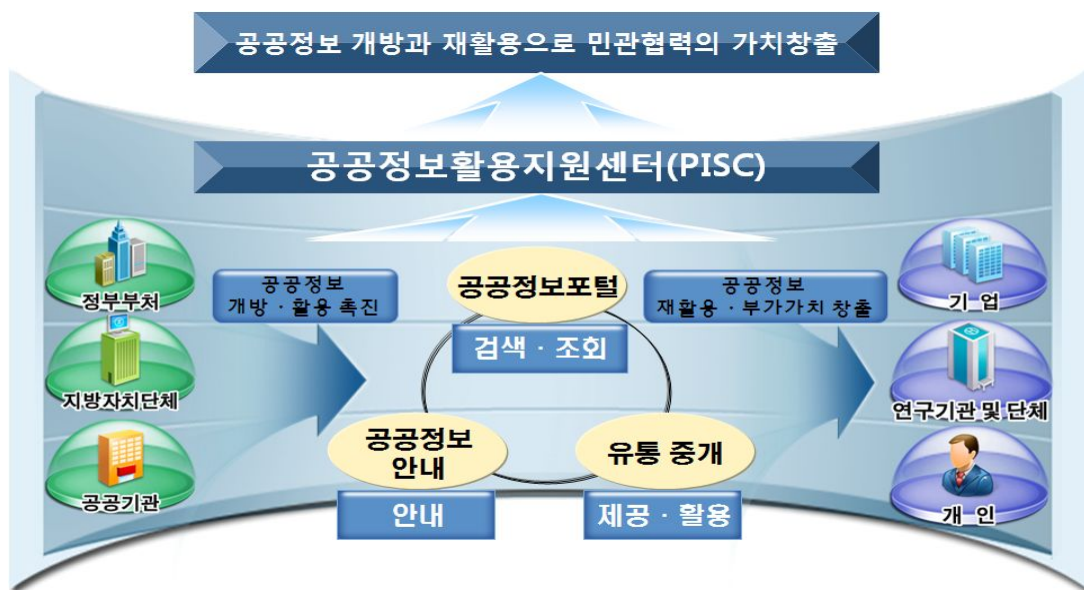
① 공공정보 제공과 활용의 법제도적 기반 마련

- ◎ 공공정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이 미흡해 공공기관의 정보제공이나 민간의 공공정보 활용에 제약
 - 공공정보 제공과 활용을 위한 각종 법제도적 근거(주체, 대상, 제공 범위와 방식 등)가 취약해 공공정보 제공에 소극적
 - ※ 공공정보 제공시 애로사항으로 63%가 공공정보 제공절차 부재를 제시(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2006)
 - 제공해야 할 공공정보 대상과 범위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 법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탓에 원활한 정보제공에 혼선 발생
 - ※ 공공정보 제공절차와 방법 등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공공정보 제공지침’을 마련해 보급했으나, 법적 구속력 부재의 한계 노출
 - 개별 법률에서 정보 제공기관과 수요기관간의 관계를 명확히 정리해 주지 못해 합리적이고 공평한 의사결정 저해
- ◎ 공공정보 공개나 제공, 산업적 활용 기반을 입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공공정보 제공과 활용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는 법제도적 기반 마련
 - 공공정보 제공 관련 유사 법령에 대한 통합적 측면의 개선 논의 필요
 - 공공정보 제공관련 권리처리 문제, 산업적 이용을 위한 제도적 대응, 비용처리 문제, 제공절차의 체계화, 추진체계 정비 등을 위한 명확한 근거를 위해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급선무
 - 정보의 성격, 보유형태, 보유기관, 예상 활용목적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법적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고려
 - ※ 공공정보 개방과 제공, 산업적 재이용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국의 경우에도 관련된 법제도적 기반 마련과 정비를 우선하여 추진

② 공공정보 제공과 활용 지원 체계 정비

- ◎ 공공정보 활용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수요에 비해 개방이나 민간 분야에서의 재활용은 미미한 수준
 - 스마트 모바일 기기 이용자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라 국민이 일상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정보를 활용한 애플리케이션 수요 급증
 - 그러나 공공정보 수요에 비해 기상정보, 지리정보 등 일부 공공정보 정도가 제한적으로 민간에 제공되는 실정이며 접근성 또한 취약
- ◎ 공공정보 개방·활용 촉진을 위해서는 공공정보 관리와 활용지원의 총괄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정보활용지원센터(PISC)’ 법적근거와 위상 확보 시급
 - 현재 PISC의 법적 기반이 취약해 정보제공 거부 등 역할 수행에 있어 많은 애로사항 발생
 - 공공기관의 공공정보 개방과 민간기업의 공공정보 수집을 어렵게 하는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지원체계로서 PISC의 위상 확보
 - ※ PISC의 정보제공 역량의 효율성 제고와 안전성 담보 관련 문제 등
 - 공공정보 소재안내, 저작권 파악 등 공공정보 활용과 관련된 중개나 어려움을 통합적으로 접수·지원할 수 있도록 PISC 역할 확대와 강화

< 공공정보활용지원센터(PISC) 목표 >



3 공공정보 개방과 활용을 위한 인식 전환

- ◎ 정부 투명성 제고와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오픈 거버먼트 기조에 따라 촉발된 공공정보 개방과 제공은 각 국 정부의 주요 정책전략으로 부상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정보의 개방과 재활용을 통해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도록 적극적인 정보개방 의지 필요
 - 공공정보 요청과 활용은 시민의 권리라는 것을 인지하고 공공정보를 보유, 관리,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

< 팀 버너스리(Tim Berners-Lee) >



“정부가 보유한 공공 성격의 데이터(public data)를 공개한다는 것은 국민에게는 정부 데이터의 접근성을 제공함으로써 정부 투명성을 높이고,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정부(및 관련 산업)의 기능을 더욱 효율화한다는 기본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 팀 버너스리 : 1989년 월드와이드웹(www)의 하이퍼텍스트 시스템을 개발. 인터넷에 대한 여러 공로로 인터넷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인물 중 한 명이며, 영국 정부의 ‘공공 데이터 개방·공유 포털(data.gov.uk)’ 에도 참여

4 민관 협력 강화와 상생 도모

- ◎ 공공정보 이용측과 제공측 양자가 상생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정보를 통해 민관이 협력할 수 있는 활용 모델 구축
 - 개인이나 기업은 상업적 이익 추구뿐만 아니라 시민 편의이나 사회적 공익 제공 측면에서도 공공정보를 재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발굴
 - 정부는 단순한 정보공개나 제공보다는 개인이나 기업이 공공정보를 능동적으로 활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다양한 수요에 적극 대응
 - ※ 영국은 정부가 소유한 데이터를 오픈 라이선스를 사용해 공개하기 때문에 누구나 데이터를 재활용하여 매쉬업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 창출

< 미국의 정보공개(data.gov) 목적 >

- S/W 개발 사업자는 data.gov에서 제공되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매쉬업, 비주얼화 실현
- 시민이 필요한 정보나 서비스를 필요할 때에 이용 가능
- 연구자(대학이나 민간 연구기관)들도 더욱 상세한 분석이나 연구 활동 실현
- 개방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상의 커뮤니티 형성

출처 : <http://www.data.gov/>

참 고 문 헌

국내 문헌

- 1 한국정보화진흥원, 「공공정보 민간활용 촉진 종합계획」, 2010. 3.
- 2 _____, 「공공정보 개방 및 민간 활용 지원을 위한 ‘공공정보 활용 지원센터 설치·운영 계획’」, 2010. 5.
- 3 _____, 「공공정보 제공 지침」, 2010. 7.
- 4 _____, 「국가와 기업을 위한 공공정보 개방 워크숍 프로시딩」, 2010. 10.

국외 문헌 및 웹사이트

- 1 EC, 「EU PSI Directive, Directive 2003/9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17 November 2003)」
- 2 ___, 「Digital Agenda : Commission consults on re-use of public sector data」, 2010. 9.
- 3 ___, 「EU Commission’s Consultation on Re-use of PSI」, 2010. 9
- 4 ___, 「Public Sector Information - Raw Data for New Services and Products」
- 5 ePSIplatform, 「Topic Report : Good Practice in promoting PSI re-use-The OPSI brand」, 2009. 8.
- 6 _____, 「Topic Report : Good Practice in promoting PSI re-use-The IFTS brand」, 2009. 8.
- 7 _____, 「Topic Report : PSI Portals-Overview of Progerss(Part 1)」, 2010. 6.
- 8 _____, 「Topic Report : PSI in Sweden-from infringement to enforcement?」, 2010. 7.
- 9 _____, 「Topic Report : Recognising to road to data.gov.de」, 2010. 7.
- 10 _____, 「Topic Report : State of Play-PSI Re-use in Spain Aporta Project」, 2010. 7.
- 11 _____, 「Topic Report : PSI Re-use in France-Overview and Recent Developments」, 2010. 7.
- 12 _____, 「Topic Report : State of Play-PSI Reuse in Australia」, 2010. 7.
- 13 _____, 「Topic Report : Open data in Finland-bottom up and middle out,but not yet from top down」, 2010. 7.
- 14 _____, 「Topic Report : New Zealand moves to embrace PSI Re-use and Open data」, 2010. 8.
- 15 ePSIplus, 「ePSIplus Conference : ‘PSI Re-use- Who Takes Action Next?’」, 2008. 9.
- 16 _____, 「Topic Report : Open data in Finland-bottom up and middle out,but not yet from top down」, 2010. 7.
- 17 _____, 「Topic Report : New Zealand moves to embrace PSI Re-use and Open data」, 2010. 8.

- 18 ePSIplus, 「ePSIplus Conference : 'PSI Re-use- Who Takes Action Next?'」, 2008. 9.
- 19 OECD, 「The Governance Challenge and Ensuring Economic Recovery」, 2009. 4.
- 20 ———, 「Focus on Citizens : Public Engagement for Better Policy and Services」, 2009. 6.
- 21 ———, 「OECD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For Enhanced Access And More Effective 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2008. 8.
- 22 ———, 「The United Kingdom Report on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unlocking psi potential」, 2008
- 23 ———, 「The United Kingdom Report on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unlocking psi potential」, 2009
- 24 Juan Pelegrin, 「Exploiting the potential of PSI」, 2007. 10.
- 25 일본 IT전략본부,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전략」, 2010. 5.
- 26 일본 경제산업성, 「해외에 있어서의 오픈 거버먼트 대처」, 2009. 12.
- 27 NTT, 「정보개방으로 보여지는 것」, 2010. 9.
- 28 市川類, 「미국 연방정부에 있어서 오픈 거버먼트 정책 동향」, 2009. 8.
- 29 奥村裕一, 「오픈 거버먼트의 가능성과 한계-네트워크 시대의 합의 형성」, 2009. 12
- 30 ———, 「새로운 공공의 오픈 거버먼트」, 2009. 12
- 31 <http://www.meti.go.jp>
- 32 <http://openlabs.go.jp/>
- 33 <http://databox.openlabs.go.jp/>
- 34 <http://koe.openlabs.go.jp/>
- 35 <http://opengov.openlabs.go.jp/>
- 36 <http://govtter.openlabs.go.jp/>
- 37 <http://epsiplatform.eu/>
- 38 <http://www.opsi.gov.uk/>
- 39 <http://data.gov.uk/>
- 40 <http://www.data.gov/>
- 41 <http://challenge.gov/>
- 42 <http://data.govt.nz/>
- 37 <http://data.australia.gov.au/>
- 38 <http://digitalnz.org/>
- 39 <http://cat.open.org.nz/>
- 40 <http://www.pisc.or.kr/>
- 41 <http://www.kiba.or.kr/>

CHIEF INFORMATION OFFICER

EXPERT INSIGHT

공공정보 개방·활용 가속화를 위한 인식의 대전환 필요

- ① 전종수 단장 (한국정보화진흥원 지식기반구축단)
- ① 유주완 (경기고등학교, '서울버스 앱' 개발자)

기획 / 작성 : 이정아 한국정보화진흥원 책임연구원

“정부 형태와 기능의 급속한 진화는 정부 서비스 창출에 시민의 영향력을 확대함. 공공정보 개방·활용은 이런 패러다임을 가속화하는 기폭제이므로 공공정보 개방을 행정서비스 최종단계로 생각하는 인식의 대전환 필요”

전종수 단장(한국정보화진흥원 지식기반구축단)



▶ 주요 경력

- 2009 ~ 현재 : 한국정보화진흥원 지식기반구축단장
- 2005 ~ 2008 :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자문위원
- 2005 ~ 2008 : 한국첨단게임협회이사
- 2004 ~ 2007 : 한국디지털콘텐츠전문가협회 회장
- 2002 ~ 2009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단장

▶ 관련 연구 실적

- 디지털콘텐츠 산업분류 체계에 관한 연구(공동)
-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한 법제개편 방안(공동)

● e-Gov → open-Gov → smart-Gov로 급속하게 진화하는 정부

- ◎ 급변하는 정보사회의 패러다임에 맞춰 ICT 기반의 전자적 행정업무와 민원서비스 대상이 확대되는 등 정부의 형태와 기능, 역할 등도 급속히 진화
 - ‘전자정부’는 정부업무에 ICT를 접목해 행정서비스의 전자화·효율화를 추진하고, 국민이나 기업의 편리성 향상과 사회 전반의 효율성을 추구
 - 전자정부가 성숙하면서 인터넷 양방향성을 활용해서 적극적인 정부 정보 공개나 정책결정에 시민참여를 촉진하는 ‘열린 정부’로 변화
 - 그리고 점차 시민참여를 주축으로 정책성과를 향상시키고, 시민의 영향력을 확대시켜서 시민과 협력·상생하는 스마트정부로 진화 중
- ◎ 시민이 원하는 정부 정보와 서비스를 투명하게 실시간으로 제공해 시민과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며, 이것이 스마트정부 실현의 단초를 제공
 - 해외 각 국은 이미 정책 선진화의 실마리를 찾고 정부 신뢰성 회복, 시민과의 소통·협력 강화, 더 나아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원천이 될 공공정보를 폭넓게 개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
 - 그리고 공공정보 개방이 참여·공유·투명성을 제고시키는 것에서 더 나아가, 공공정보를 재활용했을 때 생성되는 새로운 시장과 막대한 사회 경제적 가치의 잠재성에 주목

● 공공정보 개방과 활용은 민관에 새로운 패러다임과 모델을 제시할 것

- ◎ 공공정보 개방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책무이자 의무가 되고 있으며, 개방과 활용을 통해 민관은 새로운 상생모델을 구축
 - 정부는 공공정보를 개방하고, 이를 활용하는 각계각층의 요구에 귀 기울임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지원하고, 정부 내부적으로는 예산절감과 행정효율화 등의 효과 극대화
 - 시민과 기업 등은 공공재인 공공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해 고부가가치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정부와 협력해서 공공정보를 기반으로 한 창의적 모델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민관의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
- ◎ 지금까지는 정부가 생산·보유한 가치 있는 정보를 정부 내에서 행정 업무에서만 제한된 용도로 활용했지만, 공공정보 개방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공론화되면서 정부의 공공정보 공개를 위한 노력도 가속화

●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공공서비스 창출을 위해 공공정보 활용 환경 조성

- ◎ 지난해 말부터 급속하게 가시화되기 시작한 공공정보 개방과 활용 관련 이슈는 특히, 공공정보 공급자인 정부의 인식변화에 많은 영향을 제공
 - 그러나 아직까지 공공정보 제공·활용과 관련된 법제도적 걸림돌이나 해결해야 할 다양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자유롭게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을 지원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
 - 따라서 범부처적 차원에서 체계적인 논의와 합의를 진행시켜서 공공정보 개방과 활용 촉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급선무

< PSI 개방, 재이용 관련 각국의 법제도 정비 현황 >

- (EC) 공공정보 재이용 지침(EU PSI Directive) : Directive 2003/9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17 November 2003)
- (OECD) OECD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For Enhanced Access And More Effective 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2008
- (호주) 정보자유법(FOI, Freedom Of Information) 정비

- ◎ 공공정보 개방과 활용이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는 있지만, 급하게 서둘러 이러한 시류에 편승하기보다 우리 사회에 맞는 제도와 환경 조성이 필요
 - 미국이 정부 투명성 제고와 신뢰 회복을 위해, 영국이 새로운 비즈니스와 시장 창출을 위해, 일본이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공공정보 개방을 시작했다면, 우리는 공공정보 개방에 대한 뚜렷한 의지와 목표 정립이 시급

< 유주완, ‘서울버스 앱’ 개발자 >



□ 공공정보는 누구나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유익한 공공자산

“스마트폰이 보급 되자마자 많은 사람이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아! 이거다’ 싶어서 서둘러서 버스정보 앱(‘서울버스’)을 개발했다. 단지, 관심이 많고 재미가 있어 개발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는 예상 못했다.

공공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개방하면 정부는 훨씬 더 적은 예산을 투입해 더 훌륭한 공공서비스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굳이 자신들의 기관이 가진 정보만을 가지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많은 사람이 공공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공공정보를 활용하도록 기반 정비 필요

“정부가 공공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 공공정보를 활용한 다른 공공서비스까지 모두 개발해서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스마트폰이 보편화 되기 전부터 많은 사람이 공공정보를 활용해 어떤 유익한 서비스를 만들지 고민하고 관심을 가져왔다고 생각한다. 나 또한 그런 사람 중의 한 명이었다.

다만, 공공정보 활용의 걸림돌이나 어려움이 제거돼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활용하고 있는 버스 앱도 전국 서비스를 하고 싶지만, 전국의 버스 정보를 어떻게 수집해야 할지 조금 막막하다.

공공정보 활용 지원 원스톱 서비스, 그리고 데이터를 쉽고 편리하게 제공해 주는 포털이 필요하다. 아울러 공공정보의 실시간 연계가 원활하도록 공공정보 제공 서버의 최적화나 부하 관리도 필요하다.

공공정보 활용 방안은 그것을 활용할 개인이나 기업이 많이 고민하고 있다. 따라서 보유기관은 이용자가 편리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개방하면 역할을 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단, 공공정보를 개방하되, 그것을 재 활용해서 발생한 수익의 배분방안 등도 고민해야 한다. 공공정보 개방을 위해서도 비용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보전할 방법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유주완 : 2009년 말에 스마트폰에서 유용한 버스정보 앱을 개발해 보급함으로써 공공정보 개방과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이슈 제기와 논의를 촉발

CIO 리포트 과월호 목록

2008	Vol. 1	어린이 안전과 IT
	Vol. 2	정보화 역기능 현황과 과제
	Vol. 3	재난관리와 IT
	Vol. 4	먹거리 안전과 IT
	Vol. 5	국가사이버테러 현황 및 대응동향
	Vol. 6	그린 IT 이슈와 대응동향
	Vol. 7	해외신간도서로 보는 미래 정보사회
	Vol. 8	2008년 주요 이슈와 IT
2009	Vol. 9	2009년 국내 10대 이슈 전망
	Vol.10	범죄 해결과 ICT
	Vol.11	고령화 문제와 ICT
	Vol.12	소셜네트워크와 공공서비스
	Vol.13	그린 Security
	Vol.14	주요 선진국의 '소통형 디지털 정부' 추진 현황과 시사점
	Vol.15	주요국의 사이버 보안 추진 전략과 시사점
	Vol.16	주요국의 웹 접근성 추진동향 및 시사점
2010	Vol.17	범국가 차원의 ICT신기술 패러다임 :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전략
	Vol.18	차세대 웹 표준의 발전방향 : 공공부문 도입을 중심으로
	Vol.19	저탄소 첨단녹색통행사회(G-ITS) 구현 전략
	Vol.20	디지털 시대의 사회 통합을 위한 전략 및 시사점
	Vol.21	Gov 2.0 시대의 공공정보 및 공공서비스 활성화 전략
	Vol.22	효율적 정보화를 위한 성과기반 EA정책 추진 방안
	Vol.23	주요국의 인터넷 중독 해소 정책 및 시사점
	Vol.24	공공 부문의 성공적인 소셜미디어 도입 및 활용 전략
	Vol.25	디지털 시대의 나눔문화 활성화 전략
	Vol.26	스마트폰과 모바일 오피스의 보안 이슈 및 대응 전략
	Vol.27	미래지향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국가정보화역량 강화 방안
	Vol.28	스마트 정부의 공공정보 개방과 이용활성화 전략

-
1. “CIO 리포트”는 정보통신산업진흥기금으로 수행한 「정보화 통계조사 및 동향분석」 사업 결과의 일부로 산출된 것입니다.
 2. “CIO 리포트”는 매월 정부 정책입안자 및 일반 국민에게 국내외 주요 IT 이슈 분석과 동향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발간됩니다.
 3. 본 자료의 내용을 인용할 경우 출처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본 자료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본 내용에 대한 문의나 제안 사항이 있으시면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평가분석부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기획·구성

-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평가분석부 박선주 선임연구원(sjpark@nia.or.kr)
-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평가분석부 윤미영 선임연구원(yoonmy@nia.or.kr)
-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평가분석부 이윤희 선임연구원(unistar@nia.or.kr)

■ 문의 : 한국정보화진흥원 지식기반구축단 지식인프라기획부 이정아(leeja@nia.or.kr)

■ 보고서 온라인 서비스 : www.itglobal.or.kr
